

예술이란 무엇인가 기말보고서

미디어학과 201700000 박성범

‘대학생 되면 전시회도 다니고, 공연도 보러 다녀야지!’라던 1월 1일의 결심이 무색하게 입학 이후 전시회나 공연은 거의 가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피곤해서, 한국인이란 누구나 댈 수 있는 상투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과제는 좋은 기회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 같은 문화생활 초보자가 막상 전시를 보러 하니 막막했다. 당장 어떤 전시를 봐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예술을 공부하는 친구에게 몇몇 전시회를 추천받아봤지만, 여전히 감은 잘 잡히지 않았다.

발터 그로피우스가 바우하우스의 창립 선언문에서 “모든 조형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축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때 건축가를 꿈꿨던 것을 떠올리며 건축 전시회를 찾아봤다. 수업에서 배운 ‘르 코르뷔지에’의 전시가 있었지만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윤승중’ 건축가의 전시회도 있었으나 너무 멀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건축뿐 아니라 철학도 좋아했다. 추상적 개념인 철학을 시각, 청각 등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에 치이며 공부한 허무주의/실존주의 철학과 관련된 작품이 보고 싶었다. 어떤 작품을 보면 그런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현대 미술 전시회를 알아보게 됐다.

머릿속의 여러 필터를 거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는 ‘하이라이트: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 소장품 기획전’을 찾아가게 됐다. 서울시립미술관 사이트에는 이번 전시에서 클라우디아 안두자르, 장 미셸 오토니엘, 레이몽 드파르동, 박찬경, 이불 등 현대 미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선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물론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단지 다양한 현대 미술 작품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만으로 1시간 남짓 버스를 타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라”는 시위대 사이를 헤치며 미술관에 찾아 들어갔다. 미술관 안에 들어서자 밖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나를 감쌌다.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작품을 둘러보는 데는 2시간이 걸렸다. 예상대로 상당히 많은 작품이 있었다. 그중에는 깜짝 놀랄만한 것도 있었고, 난해한 것도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작품 세 가지를 회상해보고자 한다.

천지

전시실 입구에서 처음으로 나를 반긴 것은 다름 아닌 욕조였다. 옛날 대중목욕탕에 가면 볼 법한 타일로 만들어진 욕조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조금은 뜬금없는 산맥의 모습과 드문드문 뜯긴 잿빛 타일이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며, 그 섬뜩함 때문에 나는 과거 독재 정권이 행하던 물고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아버지는 80년대 전두환 정부에 맞서다가 구금되었고, 실제로 물고문을 당하셨다. 그때의 기억 때문인지 내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도 자세히 묘사해주시지 않았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벌어진 고문을 다룬 영화 ‘남영동1985’를 TV에서 할 때도 아버지

는 그때 생각이 난다며 채널을 돌리셨다. 내가 다닌 중학교의 교감 선생님도 민주화 운동 중 구금되어 강도 높은 고문을 당하셨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몸이 불편하시고, 종종 트라우마에 휩쓸리기도 하신다고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셨고, 친구들의 부모님 중에서도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다. 만약 이분들이 작품을 본다면 나와는 다른 감정이 드실 것이다. 고문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라면 아마 오래 보지는 못하실 것 같다. 군경이 최루탄을 쏘고, 공권력에 의해 민간인이 죽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금지되던 시대는 불과 30~40년 전이지만, 98년도에 태어난 나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역사의 한 장면으로밖에 상상되지 않는다. 물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국가 및 자본 권력은 ‘합법적 폭력’으로 민중을 억압한다. 합법적 폭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좀먹는다. 당장 몇 개월 전만 해도 보이지 않는 폭력이 축적되어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수업 중 들은 교수님의 조언이 생각나서 일부러 작품을 보며 나름대로 고민도 해보고 해석도 해본 다음에 작품 설명을 읽었다. ‘이불’ 작가는 백두산 천지를 표현함으로써 민족주의를 보여주려 했다고 한다. 고문에 대한 얘기가 직접 언급되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육조와 민족주의의 조합이라면 내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백두산 천지가 민족주의를 의미한다면, 극렬한 민족주의와 그것에 얽힌 강박적 반공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개발 중심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게 뒤엉켜 폭력적 물고문을 토해냈다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시를 보러 간 날은 201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었다. 묘하다.

EXIT

사실 전시회에서 영상 작품을 집중해서 본 기억이 많지 않다. 그런데 ‘EXIT’는 조금 달랐다. 무려 45분이나 되는 작품이라서 절반 정도만 본 것 같다. 반원 형태의 방에 180도로 영상을 틀어주는데, 스크린이 나에게 쏟아지는 기분이 들어 작품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환경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세계적인 이주 현상과 자연재해, 환경 파괴, 이로 인한 소수 민족의 위기에 대한 것이 작품의 주제였다. 사람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내내 세계지도가 펼쳐졌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점이 오가기도 했고, 녹색 점이 불타오르기도 했다. 도시들이 차오르는 물에 빠지기도 하고, 낯선 언어들이 사라져가기도 했다.

이것은 데이터 시각화였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전공하는 나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빅데이터에 대해 배우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나는 그것을 조금 무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데이터를 이용해 이렇게 아름다운, 심지어 관객을 압도할 만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여기에는 음향도 한몫했다. 딱히 듣기 좋은 음악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소리와 현장감 넘치는 효과음으로 충분했다. 작품 설명을 읽어보니 미술가, 건축가, 통계학자, 예술가가 함께 만들었다고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문의 경계를 넘어 작업했다니 더 마음에 들었다.

작품 중간 검은 화면 위에 “데이터는 절대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문구가 뜨는데,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연상케 했다. 통계학자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많은 것이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 통계, 언론, 교육, 법, 기술 모든 곳에 행위자의 주관이 스며든다.

가장 평면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내 기말보고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나는 이 작가를 알고 있었다. ‘선우 훈’ 작가의 본업은 웹툰 작가다. 작년쯤 그의 만화 ‘데미지 오버 타임’을 재밌게 본 기억이 있다. 일반적인 만화와는 다르게 과거 8비트 게임에서나 볼법한 도트 그래픽을 이용해서 관심을 끌었고, 만화 내용이 사회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다.

‘가장 평면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역시 선우 훈 작가의 그런 성향이 다분히 드러나 있다. 작품은 2층 전시실 밖 키오스크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림 길이가 길어서 관객이 직접 스크롤을 내리며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역시 아기자기한 도트그래픽이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회적인 면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면에서 매서울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림의 꼭대기에는 청와대가 자리 잡고 있다. 스크롤을 내리면 경복궁이 나타나고, 이어서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차벽과 살수차, 그리고 시위대가 펼쳐진다. 이 모든 것이 탑뷰(Top view)에서 무채색 도트그래픽으로 담담하게 그려진다.

그런데 그 아래로는 채색이 시작되더니 그림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스마트폰 화면이 마구 튀어나오고, 곳곳에 사회 풍자 요소가 등장한다. 그리고 곧이어 스마트폰 화면에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타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지난 2015년부터 급부상한 한국의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알아야 한다. 물론 페미니즘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이 정도로 큰 사회적 쟁점이 된 적은 없다. 이것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논쟁과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이 유례없는 논쟁은 20~30대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잘 이용하지 않는 중장년층은 이러한 이슈를 접할 수 기회가 거의 없다.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자면 이렇다.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의 부속 사이트 ‘메르스 갤러리’에 여성 혐오성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메갈리아’라는 페미니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메갈리아의 회원들은 우익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폭력적 남성성의 표본으로 규정, 이들의 글을 패러디¹⁾하여 공유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메갈리아에 올라오는 글들이 오히려 ‘남성혐오’를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었고, 많은 남성이 여성혐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들을 공격했다. 한편에서는 페미니즘에 찬성하지만, 메갈리아는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작품에서 ‘That is not Real FEMINISM’이라고 적힌 스마트폰 화면은 이를 의미한다.

1) 메갈리아 회원들은 이 행위를 거울에 비춘다는 뜻을 가진 ‘미러링 (Mirroring)’으로 명명했다.

뒤이어 연쇄적으로 사건이 터진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범죄 영상을 공유하던 사이트 ‘소라넷’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져 폐쇄됐고,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페미니즘 논란에는 불이 붙는다. 이때 ‘남녀 가르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요’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현상의 본질과 약자의 목소리를 은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자연’ 성우가 자신의 SNS에 ‘GIRLS Do Not Need A PRINCE’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올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남성 중심적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것이 메갈리아에서 만든 티셔츠라며 이자연 성우가 제작에 참여한 게임을 보이콧했고,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다.²⁾ 이자연 성우를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선우 훈 작가를 비롯한 일부 예술가들이 이자연 성우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사람들은 이들의 작품을 보이콧하자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창작은 권력이 아닙니다.’라는 표어를 내건 ‘YES CUT’ 운동으로 퍼졌다. 웹툰 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 운동은 예술가가 가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것을 의미했다.

청와대에서 시작한 작품은 ‘That is not Real FEMINISM’과 ‘YES CUT’이 뒤섞이며 한강에 이른다. 이어 국회의사당이 지나가고,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연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현장이 나타나며 작품은 끝난다. 수많은 사회 이슈가 그림 속에 함축되어 있었다. 반복되는 ‘YES CUT’은 마치 작가의 울부짖음처럼 보였다.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뭘 저렇게 열심히 보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여러 차례 그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다시 보고, 또다시 봤다. 기득권층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의식하지 못한다. 많은 중상류층 자녀들은 자신의 성공을 노력의 결과라고 믿는다. 실제로는 그들의 부모, 성장 환경, 사회 구조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겠지만, 노력의 신화는 그런 우연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젠더 기득권을 가진 남성은 자신이 가진 특권을 의식하지 못한다. 남성 대부분은 술에 취해 혼자 택시를 탔을 때 성폭행을 걱정하지 않는다. 길거리를 다닐 때 도촬을 걱정하지도 않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누락 되지도 않는다. 내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가 곱씹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남성은 아직 많지 않다. 요즘 어디 가서 페미니즘이니, 젠더권력이니 하면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히기에 십상이다. 몇 개월 전 새터 뒤풀이에서 한 남자 선배는 “이런 건 남자가 해주는 거야.”, “여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반복했다. 정말 부끄럽게도 나는 그때 선배에게 화를 내지 못했다. “앗” 하는 외마디가 튀어나왔다가 다시 말을 집어삼켰다. 선배라는 권위에 짓눌렸던 것일까, 여자 동기들이 그 말에 마냥 웃고 있었기 때문일까. 단지 내가 남성이라서 화를 낼 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미술관을 나오면서

2) 당시 메갈리아 커뮤니티는 활동이 멈춘 상태였다. 메갈리아는 그들에게 시뮬라크르가 되었고, 그들은 메갈리아를 ‘악한 여성우월주의’ 그 자체로 재생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이다. 메갈리아가 실재하느냐 실재하지 않느냐는 더 이상 중요치 않다. 이것은 2017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어쩌다 보니 기억에 남는 세 작품 모두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들이었다. ‘천지’는 민주주의, ‘EXIT’는 환경, ‘가장 평면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는 페미니즘을 말하고 있다. 예술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예전에 사회과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공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실용성에 호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존 키팅 선생(로빈 윌리엄스역)이 “의학, 법률, 경제, 기술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시와 미, 낭만, 사랑은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린다. 결국 나는 기술을 통해 시, 미, 낭만, 사랑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기술이 숨 가쁠 정도로 빠르게 달려 나가고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더욱 명심해야 한다. 내가 가진 수단과 목적이 무엇인지 되새겨본다.

전시회는 기대 이상이었고, 다양한 작가들과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 —믿기지 않지만 나는 이 보고서마저 즐겁게 쓰고 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짧은 지식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해석을 내놓는 경험은 상당히 신선했다. 내가 뽑은 세 작품 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누군가 같이 가자고 한다면 흔쾌히 또 한 번 갈 의향이 있다. 아쉽지만 전시회에서 허무주의/실존주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은 만나지 못했다. 다음에는 다다이즘이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전시회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 특히 피에르 만조니나 앤디 워홀의 전시가 있다면 찾아가야겠다.

3층에서 전시회의 마지막 작품을 보고 1층에 내려가 ‘천지’를 다시 봤다. 미술관을 나와 대한문 앞에 다다르니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을 외치던 집회의 흔적이 이곳저곳 남아 있었다. 내가 아직도 미술관에 있는 건가 헛갈렸다.